

김병기 與 신임 원내대표 “상법 개정안 가장 먼저 처리”

“코스피 5000 위해 시급…민생법안·추경, 개혁 입법 균형 있게 추진”
당정 협의 이번 주말부터…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자리 요구 바로 거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사진) 신임 원내대표가 “민생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제1 먼저 처리하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워낙 중요하고, 코스피 5000로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며 “민생이 시급해 민생 법안, 민생 추경,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짜 맞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정·대,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민생 현안에 대해 반드시 법안(처리) 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를 다음 주 주말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면서 “정부가 그때까지 구성되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야당과 협상할 때 저희가 먼저 요청드릴 것이 조기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각을 안정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실사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과의 소통 관련해서는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여당 쪽에서는 만남을 정례화하고자 한다”며 “저희 수석부대표단을 중심으로 해서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간격을 최대한 줄이고 대화를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요구와 관련해선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거절했다.

또 “법사위원장이 여당에 있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얼마나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 형성되는 것인지 법사위가 어디 있느냐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원내대표 선출 후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덕담을 해 주셨다”며 “잘하라고 해주셨다”고 소개했다.

한편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는 재선의 문진석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는 재선의 허영 의원이 임명됐다.

김 원내대표는 소통수석과 지원실장을 신설하고 각각 박상혁 의원(재선), 윤종균 의원(초선)을 선임했다.

원내대변인은 초선인 김현정·문금주(고흥보성 장흥강진)·백승아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기현 의원이 맡는다.

김 원내대표는 중 민생부대표를 신설해 김남근 의원을 선임했다.

이외 원내부대표는 김기표·김문수·김영환·김준혁·권향엽·문대림·박용갑·박홍배·오세희·이건태·이성운·이훈기·전진숙·조인철·채현일 의원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심을 받아 안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힘을 맞추며 민생회복·경제성장·내란중식·헌정질서 회복에 앞장설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을 참배하기 위해 묘역에 들어서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정청래 민주 당대표 출마 선언

5·18 참배 광주·전남 현역 단체인·국회의원 대거 동행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서울 마포구을)의원이 15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저는 정치의 방향과 속도가 맞는 동지이자 베스트 프렌드(절친)”라며 “최고의 당정 관계로 정부와 호흡을 맞추겠다”고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어 입법을 통해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며 12·3 불법계엄 조사·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민주당과 국회에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당원이 주인인 진짜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겠다”며 대의원 투표제 폐지, 전당대회 1인

1표제, 원내대표·국회의장 경선 시 권리당원 참여율(현 20%) 상향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출마 선언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감사인사를 하기 위해 광주·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정 의원은 5·18묘지 방명록에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12·3 내란을 막아주신 5·18 광주 민주 영령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의 참배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조인철(서구갑), 정준호(북구갑), 전진숙(북구을), 박군택(광산구갑),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주철현(여수갑),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등 의원

들이 동행했다.

정 의원은 문재학·안종필·박관현·양창근 열사 묘역과 무명열사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뒤 정 의원은 “광주와 전남의 골목을 누비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의 뿌리가 광주 5·18 정신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이재명 민주 정부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공석이다. 이후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다.

정 의원과 경쟁할 차기 당 대표 출마 후보로는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3선의 박 전 원내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힘 원내대표 오늘 선출

수도권 김성원·TK 송언석·PK 이현승…의총서 토론회·경선 투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는 지역과 계파 대결 구도 양상 속에 선출하게 됐다.

후보들(가나다순)은 수도권 3선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상 기호순) 의원, 대구·경북(TK) 3선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과 부산·경남(PK) 4선 이현승(부산 진구을) 의원이다.

지역 변수와 함께 구(舊)주류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계파 응집력도 경선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계파별로는 송 의원이 구주류의 지지세가 강하고, 김 의원이 친한계로 분류되며,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엷은 것으로 통한다.

다만 지역·계파 대결 구도에 피로감을 느끼는 ‘부동층’ 의원의 표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거 당일 합동토론회 내용과 기존 의원들 사이 진분 등을 바탕으로 한 ‘주차별 개인기’도 변수가 될 수 있어 경선을 하루 앞둔 15일까지도 승패를 가늠하기 힘든 예측불허의 혼전 양상이다.

신임 원내대표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숙제는 탄

핵 정국에 대선 패배가 더해진 후유증을 치유하는 것이다. 3명의 주자가 일제히 출마 일성으로 ‘계파 청산’, ‘당내 화합’ 등을 내건 것도 이런 인식을 반영한다.

이번 경선은 당장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당무감사 등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포스트 대선’ 개혁안 내용을 놓고 내부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열린다.

신임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을 상대로 원내에서 투쟁력과 협상력을 발휘하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다. 가깝게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원구성 재협상을 끌어내는 것 등이 새 원내대표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합동토론회와 경선 투표를 연달아 실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치러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민정수석, 시간 걸려도 신중 인선”

‘부동산 차명 논란’ 오광수 낙마

대통령실은 15일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후임 인선 논의와 관련해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확인된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새로운 민정수석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가안보실 1·2·3차장 및 AI미래기획수석 인사를 발표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전 수석은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임명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3일 물러났다.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 외에도 경청통합수석 등

일부 수석급 비서진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이나 경제살리기, 정치 복원 등을 중심으로 업무가 이뤄지다 보니, 다른 부분들의 인선은 좀 늦어진 면이 있다”며 “더 꼼꼼하게 검증하는 중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장관 등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도 “1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안다. 그 이후 집중적으로 인선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G7 회의 참석 후 돌아오는 시점과 맞물려 (내각 후보자들의) 발표가 가능하지 않겠다”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학부 대학원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